

장흥군, 국가 공모 사업 유치 '사활'

공직자 대상 공모사업 유치 역량강화 교육

정중순 군수 "군민에 실질적 혜택 돌아갈 것"

장흥군이 각종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 유치 확대를 위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나섰다.

21일 열린 교육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상 교육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초빙된 광주전남연구원 조창완 선임연구위원은 장흥군 공직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정부 공모사업 유치 전략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 가능사업 현황과 공모사업 참여 전략 등을 수록한 자료집을 사전에 배포했다.

조창완 선임연구위원은 강의에서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만큼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확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분권 추진전략과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장흥군의 대응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중순 군수는 올해 1분기 동안 2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47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 같은 기세를 이어 2020년 추진할 공모사업의 목표



를 63개 사업 2,560억원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주요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정중순 군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해 더욱 공격적인

공모사업 유치에 나설 것"이라며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고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아트홀, 김중안 작가 초대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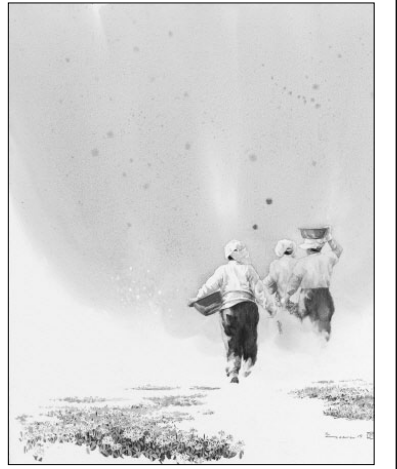
다음달 10일까지

강진군아트홀 전시실에서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김중안 작가의 초대전 '봄-epilogue'가 개최된다. 강진의 봄 풍경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는 김 작가의 수채화 작품 총 30점이 전시된다.

김중안 작가는 강진읍 고내마을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재학시절 한국수채화 공모전에서 특선 2회를 하며 수채화 작가로 등단했다. 남도 땅의 아름다움과 자연과 하나 되는 인간의 삶을 그려내는 작품활동으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힌다.

2018년 서울한국미술관의 '한국수채화협회전'을 비롯해 2020년 관선재개관기념초대전인 '경계를 넘어서서' 등 다양한 주요단체전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한국수채화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김중안 작가는 강진군아트홀에서 기획한 '내고향 강진', '남도미술 강진에서 꽃 피우다', '다산과 영랑을 품으며' 등 다양한 기획전에 초대돼 작품을 선보여 온바 있다.



이승욱 군수는 "김중안 작가의 봄-epilogue 초대전은 유년 시절의 추억과 더불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 다양한 예술적 감흥을 전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군민과 관람객 모두 이번 초대전을 통해 잠시나마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방역작업을 비롯해 방문객 마스크 쓰기 등에 방수칙을 준수해 감염 위험요소를 차단한 안전한 관람을 추진한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 내동리 쌍무덤 "마한시대 금동관(편) 출토"

5세기말 영산강유역의 강력한 고대 마한 세력의 존재 재확인



영암군은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남문화

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 중인 지방기념물 제83호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 국보 제295호로 지정된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매우 흡사한 금동관(편)이 출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금동관 출토는 일제강점기 나주 신촌리 금동관 출토 이후 마한시대 금동관으로는 100여년 만에 처음 출토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금동관(편)은 지난해 7월 영산강유역 마한 최고 수장층으로 확인되었던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 당시 금동관에 장식된 유리구슬, 영락(瓔珞)과 금동관 조각들

이 확인되어 관련 학계 및 세간에 큰 이슈가 된 이후 추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 출토되었다.

금번에 출토된 금동관(편)은 금동대관 둥근 테의 앞쪽과 양측면에 나뭇가지 모양의 세움 장식을 세운 형태로서 줄기 위에 커다란 꽃봉오리를 만들고 그 좌·우가기에 2개의 꽃봉오리를 비스듬하게 배치하였다. 그 아래에는 2단의 가지를 좌우대칭으로 뻗게 하였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의 가지는 매우 작게 표현되었다. 꽃봉오리 중앙에는 연꽃무늬로 표현하였고 최상단에는 유리 구슬을 장식하였다.

이번 영암 내동리 쌍무덤 출토 금동관은 5세기말에서 6세기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그 형태가 매우 비슷한 점에서 영산강 유역의 마한 세력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최고의 위세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 안치된 피장자의 지위나 권위는 당시 전남지역 고대 마한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로 추정된다.

한편 전남지역 452개소 마하고분군 중 영암군에 분포된 고분군은 약 41개소가 밀집되어 있고, 그 중 20여기의 고분군이 영암 내동리 쌍무덤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이 지역에 마한시대 강력한 정치 세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영암 내동리 쌍무덤은 5세기말에서 6세기 초에 조성된 고분으로 학계에서 보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끊긴 학교급식에 '농산물 꾸러미' 가정 전달

장기화 된 학교급식 중단으로 지역 학생과 식재료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지역 농산물로 구성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작해 학생 각 가정에 공급한다.

함평군은 20일 총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유

치원, 초·중·고(특수) 등 지역 44개교 3,024명의 학생들에게 농산물 꾸러미(6종·9종)를 전달한다.

이 사업은 기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지원 사업'을 대체한 것으로, 오는 4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군은 지난 16일 학교, 식재

료 공급업체,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급식 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6종·9종의 꾸러미 품목을 결정했다.

각 꾸러미는 백미, 햅쌀과, 방울 토마토 등 곡류·채소류·과일류로 구성됐으며, 모두 함평산 친환경 농산물로 꾸러졌다.

대상별로 초·중·고·특수교 학생들에게는 1인당 4만 원 상당의 9종의 꾸러미가 제공된다.

학부모 부담분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학생들에게는 이를 제외한 2만 4천 원 상당의 6종의 꾸러미가 공급된다.

각 꾸러미는 학교별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쳐 21일부터 순차 배송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진도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농가당 200만원...안정적 청정·명품 축산물 생산

진도군이 안정적인 청정·명품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우, 돼지, 닭, 오리, 염소 등 인증 받은 전 축종으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농업법인)로 농가당 200만원 한도로 인증비용을 100% 지원한다.

군은 인증비 지원을 통해 관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32호에서 46호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육환경과 사육 조건, 자급사료 기반, 가축의 입식·출하, 사료와

영양관리 등 친환경 인증기준에 맞게 가축을 사육하고 등록된 인증기관에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농업법인)는 2년 주기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지난 10일부터 개설된 온라인 과정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도 가능하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명품 축산 실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서치 아웃
2관	데드풀, 주디, 라라랜드
3관	더 터닝,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서치 아웃
4관	1917
5관	1917, 다크 워터스
6관	로건, 비밀정보원, 신과 나
7관	인비저블맨
8관	라라랜드, 생일
9관	라라랜드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LOTTE CINEMA 광주(백화점)

4관	오픈 더 도어
5관	원데이, 라라랜드, n번째 이별중
6관	라라랜드, 1917, 서치 아웃

문의전화 1544-8855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68(대인동, 롯데백화점 9층)